

2021
수특

2021 EBS 수능특강 문학 2. 적용학습 현대소설 01 도시와 유령 이효석 분석

이 콘텐츠는 「콘텐츠산업 진흥법」,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됩니다.
본 콘텐츠의 무단 배포 시, 콘텐츠산업 진흥법과 저작권법에 의거하여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 지문 분석

어두워 가는 황혼 속에 음침한 동묘는 여전히 우중충하였다.(조선의 현실, 동묘가 암울한 공간으로 전락함)

좀 이르다고 생각하였으나 나오기를 기다리면 되지 하고 제멋대로 후둑후둑 뛰는 가슴(전날에 도깨비 불을 본 것으로 인한 놀람)을 가라앉히고 아직도 열려 있는 대문을 서슴지 않고 들어섰다. / 중문을 들어서 정전 앞으로 몇 발짝 걸어갔을 때이다.

전날 밤에 나타났던 정전 옆 바로 그 자리에 험수룩하게 산발한 두 개의 그림자가 있었다. 그러나 나는 벌써 어리석은 전날 밤의 나는 아니었다.(전날 예상치 못한 도깨비불에 도망쳤음) / ‘㉠원 요런 놈의 도깨비가…….’

몽둥이를 번쩍 들고 사실 장군다운 담을 가지고 나는 그 자리까지 달려갔다.(전날과는 달리 도깨비불의 정체를 밝히기 위해 용기를 낸 ‘나’의 모습)

▶ 전날 만난 도깨비의 정체를 밝히기 위해 다시 동묘에 음.

하나!

나의 손에서는 만신의 힘이 맺혔던 몽둥이가 힘없이 굴러떨어졌다.(도깨비의 실체가 불쌍한 거지 모자임을 알게 됨) 유령 장군이 금시에 미치광이 광대 새끼로 변하여 버렸던 것이다. / ‘원 이런 놈의…….’ 틀림없던 도깨비가 순식간에 두 모자의 거지로 변하다니! 이런 기막힌 일이 어디 있던 말인가.

다음 순간 그 무엇을 번쩍 돌려 생각한 나(거지 모자를 사람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도깨비의 장난으로 생각함)는 또다시 몽둥이를 번쩍 들었다.

“요게 정말 도깨비장난이란 거야.”

하나 도깨비란 소리에 영문을 모르는 두 모자는 손을 모으고 썩썩 빌었다.(거지 모자는 ‘나’의 대응을 심각한 상황으로 받아들임)

“㉡아이구, 왜 이럽니까?” / 이건 틀림없는 사람의 목소리였다.

“나가라면 그저 나가라든지 그래 이 병신을 죽이시렵니까. 감히 못 들어올 덴 줄은 알면서도(그당시 거지들은 동묘를 드나들 수 없었음을 알 수 있음) 혈수할수없이…….”

눈물겨운 목소리로 이렇게 사죄를 하면서 여인네는 일어나려고 무한히 애를 썼다.(도시 빈민의 비참한 모습) 어린애는 울면서 그를 붙들었다. / 역시 광대에 지나지 못한 나(도깨비를 찾으려 했던 자신에 대한 자조적 표현)는 너무도 경솔한 나의 행동(자신의 경솔한 행동이 거지 모자에게 위협적인 상황이었음을 깨달음)을 꾸짖고 겨우 입을 열었다.

“㉢아니우, 앓아 계시우. 나는 고지기두 아무것두 아니니.”

“네?(거지 모자가 ‘나’를 동묘를 관리하는 사람으로 오해했음이 드러남)” / 모자는 안심한 듯한 동시에 감사에 넘치는 눈(당장은 동묘에서 나가지 않아도 된다는 안도감에서 나온 행동. 거지 모자의 비참한 처지를 부각하여 보여줌)으로 나를 쳐다보았다.

“어젯밤에 여기에 아무것도 나오지 않았소?” / 무어가 무언지 분간할 수 없는 나(거지 모자를 확인했음에도 어제 있던 일과 관련하여 의문점들이 남아 찝찝함)는 이렇게 물었다.

“네? 나오다니요? 아무것두 나오지는 않았습디다. 그러구 단지 우리 모자밖에는 여기 아무것두 없었습니다.(도깨비의 출현이 비현실적 사건이 아니었음을 확인)” / 여인네는 어사무사하여서 * 이렇게 대답하였다.

“㉔그럼 대체 그 불은?” / 나는 그래도 속으로 의심하면서 주위로 눈을 휘둘렀다.(‘나’의 의문점이 완전히 해소되지 않음을 의적으로 드러냄)

[A] “무슨 일이나 생겼습니까? 정말 저희들밖에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저지른 것두 없었습니다. 밤중은 돼서 다리가 하두 아프길래 약을 바르려고 찾으니 생전 있어야지유. 그래 그것을 찾느라구 성냥 한 갑을 다 그어 내버린 일(어제 ‘나’가 본 도깨비불의 정체)밖에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하고 여인네는 한쪽 다리를 훌쩍 걸었다(자신이 어제 성냥불을 켤 수밖에 없던 상황을 ‘나’에게 보여 주기 위한 행위). 그리고 눈물이 그 다리 위에 푹푹 떨어지기 시작하였다(자신의 비참한 처지에서 비롯되는 참담함).

▶ 거지 여인과의 대화를 통해 어제 본 것이 도깨비가 아니었음을 깨닫게 된 ‘나’

나는 모든 것을 얼음장 풀리듯이 해득(여인의 행동과 말에 의해 어제 겪은 일들을 완전히 이해하게 됨)하기는 하였으나 여기서 또한 참혹한 그림을 보지 않으면 안 되었다(예상치 못한 도시 빈민의 비참한 처지를 직접 목격하게 됨). 그의 훌쩍 걸은 한편 다리! 그야말로 눈으로는 차마 보지 못할 것이었다. 발목은 끊어져 달아나고 장딴지는 나뭇개비같이 마르고 채 아물지 않은 자리가 시퍼렇게 질려 있었다.(자동차에 의해 상해를 입은 여인의 상태를 사실적, 비유적으로 묘사함)

“그놈의 원수(근대 문물인 자동차에 대한 반감, 비판적, 냉소적 태도)의 자동차…… 그나마 얻어먹지도 못하게 이렇게 병신을 만들어 놓고…….”

여인네는 울음에 느끼기 시작하였다. / “자동차예요?” / “네, 공원 앞에서 그놈의 자동차에…….”

▶ 여인이 자동차 사고로 인해 큰 부상을 입었고, 제대로 회복도 안 된 상태라는 것을 알게 됨
<중략>

나는 거의 실망에 가까운 어조로 이렇게 중얼거리고 대수롭지 않은 듯이 발길을 돌리키려 할 때이다. 사람들의 수물거리는 틈으로 나는 무서운 것(자동차로 인해 상해를 입은 여인)을 보았다.

군중의 숲에 싸여서 안 보이는 한 채의 자동차와 그 밑에 깔린 여인네 하나를 보았다.(‘나’는 거지 모자를 동묘에서 만나기 전 어제, 공원 앞에서 사고를 목격했음) 바퀴 밑에는 선혈이 임리하고 그 옆에는 거지 아이 하나가 목을 놓고 울면서 쓰러져 있었다.

‘자동차 안에는.’ / 하고 보니 아나나 다들까 불량배와 기생 년들이 그득하였다.(근대 문물을 상징하는 ‘자동차’를 향유하는 사람들에 대한 반감, 비판적 어조)

‘오라질 연놈들!’ / ‘자동차 타니 신이 나서 사람까지 치니.’ / ‘원 끄찍두 해라.’

이런 말마디를 주우면서 나는 어느 곁에 그 자리를 밀려져 나왔었다.

“㉕그래 당신이 그……(자신이 목격했던 자동차 사고의 피해자 여인이 거지 모자의 여인임을 깨달음)” / 나는 되풀이하던 기억의 끝(자동차 사고)을 문득 돌려 이렇게 물었다.

[B] “네, 그렇습니다. 달포 전에 그 원수의 자동차에 치여 가지구 병원엔지 무엔지를 끌구 가니 생전 저 어린것이 보구 싶어 견딜 수 있어야지유. 그래 한 달두 채 못 돼 도루 나오지 않았어요. 그랬더니 이놈의 다리가 또 아프기 시작해서 배길 수 있어야지유. 다리만 성하문야 그래두 돌아댕기면서 얻어먹을 수는 있지만…….”(자동차 사고로 인해 구걸해 먹고 사는 것조차 어렵게 된 거지 모자를 통해 도시 빈민의 처지를 상징적으로 보여줌)”

여인네는 차마 더 볼 수 없는 다리를 두 손으로 만지면서 울음에 느꼈다.

나는 그의 과거를 더 캐물으려고도 하지 않았다. 아니 묻지 않아도 그의 대답은 뻔한 것이었다.

‘집이 원래 가난했습니다. 그런 데다가 남편이 죽구 나니……(‘나’의 짐작으로, 도시 빈민들이 더욱 비참한 곤경에 빠지는 일이 예외적이지 않음을 드러냄).’

비록 이런 대답은 안 할지라도 그 운명이 그 운명이니 무슨 더 행복스런 과거를 찾아낼 수 있었으리요.

나의 눈에는 어느 결엔지 눈물이 그득히 고였었다.(거지 모자의 비참한 운명에 대한 '나'의 연민의 감정이 드러남) '동정은 우월감의 반쪽'일는지 아닐는지는 모른다. 하나 나는 나도 모르는 동안에 주머니 속에 든 대로의 돈을 모두 움켜서 뚝 떨어지는 눈물과 같이 그의 손에 쥐여 주었다.(자신도 가난한 처지에 있으면서 자신보다 더 비참한 처지에 놓인 거지 모자에 대한 동정의 시선에서 나온 행동) 그러고는 아무 말 없이 부리나케 그 자리를 뛰어나왔었다.

- 이효석, 「도시와 유령」

* 어사무사하여서 : 생각이 날 듯 말 듯 하여서.

▣ 핵심 정리

■ 갈래: 단편소설

■ 시점: 1인칭 관찰자 시점, 1인칭 주인공 시점 부분 혼용

■ 배경:

① 시간적: 1930년대

② 공간적: 동대문 동묘 빈민촌

■ 성격: 현실 비판적

■ 주제: 가난하고 소외된 자들의 비참한 삶

■ 특징:

① 화려한 도시 VS 어두운 유령 공간 → 대조를 통한 주제 부각

② 독자의 각성 및 행동 촉구를 요구하는 동반 작가의 면모 볼 수 있음

③ 1인칭 관찰자 시점 → 관찰된 현실을 고발하는 현실 비판적

▣ 이해와 감상

거지 모자의 밑바닥 인생을 충격적으로 제시하여 빈곤의 문제를 더욱 가중시킨다. 작가는 대중이 소외되는 사회 병리 현상을 고발함으로써 구시대적 기존 질서를 철저히 비판하고, 독자로 하여금 새 질서를 위한 투쟁에 참여할 것을 역설한다.

이념적으로는 프롤레타리아를 부르짖으며 현실적으로는 부르주아적 생활을 지향하는 당시 지식인 청년들의 분열된 성격을 추출해냄으로써 암울하고도 폐쇄적인 어두운 시대에 일부 지식인들의 비극적인 방황과 몸부림을 확인할 수 있다.

이 작품은 1인칭 관찰자 시점과 1인칭 주인공 시점이 혼재되어 사용되고 있다. 보다 독자와 밀착된 관계를 노림과 동시에 '나'의 일상생활 일부를 고백함으로써 빈곤한 근로자의 단면을 제시한다.

또한 거지 모자의 밑바닥 인생을 충격적으로 제시하여 빈곤의 문제를 더욱 사실적으로 보여주고 있으며, 독자로 하여금 새 질서를 위한 투쟁에 참여할 것을 역설하고 있다.

▣ 전체 줄거리

뜨내기 도시 근로자인 '나'는 매일 밤 일정한 거처도 없이 동대문 혹은 동묘에서 노숙을 하는데, 어느 날 동묘에서 희미한 도깨비불과 산발한 노파를 만나서 혼비백산하며 도망친다. 다음 날 '나'는 동묘에서 그들이 자동차에 치여 구걸도 못 하는 비참한 처지에 있는 거지 모자임을 알게 된다. '나'는 거지 모자에게 있는 돈을 모두 주고 그곳을 빠져나온다.

2021
수특

2021 EBS 수능특강 문학 2. 적용학습 현대소설 02 고향 이기영 분석

이 콘텐츠는 「콘텐츠산업 진흥법」,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됩니다.
본 콘텐츠의 무단 배포 시, 콘텐츠산업 진흥법과 저작권법에 의거하여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 지문 분석

[앞부분 줄거리] 일본 동경에서 유학 후 5년 만에 고향인 원터 마을에 돌아온 김희준은 마을에 철도가 놓이고 **제사(製絲)(고치나 솜 따위로 실을 만듦)** 공장이 들어섰으나 여전히 가난한 고향의 현실을 목격한다. 대부분 소작농으로 전락한 농민의 현실을 목도한 희준은 스스로 소작인으로서 농사를 지으며 계몽 활동을 벌이고, 농민을 결집시킬 수 있는 두레를 만들고자 **마름(지주를 대리하여 소작권을 관리하는 사람)**인 안승학을 찾아간다.

안승학은 희준이와 정면충돌하기가 싫어서 표면상으로는 선선히 승낙하는 체하였으나 내심으로는 두레를 내자는 데 그리 찬성하고 싶지는 않았다. 그것은 두레를 반대하거나 자기에게 손해가 돌아올까 해서 겁내는 것이 아니라 역시 희준이의 세력이 커질까 봐서 시기를 하기 때문이다. **그는 스스로도 너무 자 겁함이나 아닌가 하고 은근히 자기를 꾸짖어 보기도 하였으나 어쩐지 마을 사람들이 희준이를 가까이하는 것 같은 생각은 자기의 지위가 흔들리는 것처럼 불안이 없지 않았다.**(안승학은 자신의 마름으로써의 권리가 희준이 계획하는 두레로 인해 흔들릴까봐 불안해하고 시기함) 안승학은 그 뒤로 한참 동안 수판알을 굴리며 생각을 해 보다가 갑성이를 시켜서 학삼이를 불러왔다. 학삼이는 그가 민 판서 집 '사음'을 운동할 때부터 그에게는 다시없는 심복이었다. 그래서 무슨 일이든지 긴한 일이면 으레 학삼이와 상의하는 터이다. / “아침 잡수셨어요?”

수염으로 한뫼를 보는 학삼이는 주인에게 공손히 인사를 하며 마루 끝에 걸터앉는다.(학삼이의 행동을 통해 두 인물의 상하 관계를 알 수 있음. 학삼이가 더 아랫사람)

“아, 이리 좀 들어오게. 조용히 할 말이 있어.”

학삼이는 무슨 일인지 몰라서 눈을 둥그러니 뜨고 방으로 들어와 앉는다.

“자네도 들었나! 희준이한테.” / “무엇 말씀인가요?”

“두레(희준은 농촌 계몽 운동의 핵심으로 ‘두레’를 조직하고자 하고 있음. 농민들의 의식을 결집하고 그들 스스로 단결할 수 있는 계기가 됨. 기득권층인 지주와 마름 세력에는 위협적인 조직으로 인식됨) 말이야.” / “네, 젊은 애들이 지껄이는 말은 들었어요, 왜요?”

주인은 한 걸음 다가앉으며 교활한 웃음을 가재수염 밑으로 머금으면서(안승학의 외양을 부정적으로 묘사함. 그의 내면 심리에 교활한 의도가 담겨 있음을 짐작하게 함)

“그럼 잘되었네. 자네가 그것을 반대하게.” / “내가 반대해요?”

“응 그래, 지금 곧 희준이가 왔다 갔는데 그런 말을 하기에 동중에 손해가 없거든 해 보라고 했네마는 나중에 생각해 본즉 뒷일을 누가 아나. 두레를 냈다가 공연히 부비 * 만 나게 되면 가난한 사람들에게 힘에 넘치는 **추렴새(모임에서 일정 금액 각자에게 거두는 금액 혹은 그런 일)만 물리게 될 것 아닌가?**”

▶ 희준이 두레를 추진하는것에 대해 못마땅해하고 경계를 하는 안승학 (중략)

백룡이네 눈을 매러 와서 두레는 한바탕 들판에서 놓고 저녁때의 쉴 참이 되었다.(두레로 결집한 농민들이 서로 일을 나누어 돕고 있는 모습) 농군들은 논두렁에 앉아서 담배를 피운다.

술을 많이 먹으면 눈을 거칠게 맨다고 그들은 누구에게나 한 번에는 한 사발 이상을 더 먹이지 않았다.(서로를 위해 노력하는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는 모습) 지금 그들은 담배 연기에 싸여서 이야기의 꽃이 피었을 때, **희준이도 그들의 틈에 끼여 앉아서 한 추렴을 들었다.**(농민들과 함께 농사일을 하는 희

준) / “아니 희준이는 그러다가 농군이 되기 쉽겠네. 풍물 치는 것은 어디서 그렇게 배웠나.(일본 유학을 다녀온 희준이 두레일에 호의적인 것을 보고 의아함에 묻는 말)”

김 선달은 앞니 빠진 말상 같은 얼굴을 흔들며 허허 웃는다.

“글쎄 말이지, 논두 매면 곧잘 매겠는데.”

“왜 농군이 되면 못쓰나요?” / 희준이는 그들을 쳐다보며 따라 웃는다.(정신적 측면에서 농민과 연대하고자 하는 희준의 모습)

“자네 같은 사람이야 농군이 안 되더라도 잘살 수가 있을 터인데. 참 저 사람은 별일이여! …… 왜 월급 생활을 앓는다나?” / 하고 조 첨지는 참으로 의심스러운 듯이 희준이를 노려본다.

“월급 생활보다도, 이런 일 하는 것이 제일 좋아요.”(농민의 삶 속에서 그들과 연대하고 싶음이 드러남)

“그래도 무슨 주위가 다르기에 그렇지 않은가. 우리 같은 무지한 백성이야 여복해서 땅을 파먹느냐 싶은데? 원 참.”

조 첨지는 다시 의심스러운 눈을 희준에게로 돌리는데(유학파인 희준이 편한 생활을 지양하고 농민 계몽 운동을 하고 실제 농사일을 직접 하는 것에 대한 의아함) 그러나 희준이는 잠자코 그들의 대화를 듣고 있었다.

– 그들은 오히려 원시적인 우매한 생각에 사로잡혀 있었다. 인간의 생산력이 유치하였을 때 자연에게 압박을 당하고 사회 환경의 지배를 받을 때 그들은 이것을 불가항력으로 돌리는 동시에 인간을 무력하게 보고 따라서 ‘숙명적’ 인생관을 갖게 되지 않았던가? 지금 이들에게 노동은 신성하다, 사람은 누구나 병신이 아닌 다음에는 노동을 해서 먹고사는 것이 가장 옳은 일이라고, 농사짓는 것과 석탄 캐는 것과 고기 잡는 것과 길쌈하는 것 같은 생산적 노동은 그것들이 우리 생활에 직접으로 필요한 것인 만큼 더욱 귀중한 일(희준이 농민과 연대하며 농촌 계몽 운동을 하는 이유)이라고 설명을 한댔자, 잘 알아듣지 못한다. 그들은 놀고서도 잘사는 사람(자본주의 사회의 경제 구조가 낳은 폐단. 돈이 많은 사람은 일하지 않고 더욱 부유해짐으로써,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심화됨)을 부러워한다. 놀면서 잘사는 까닭이 웬일 인지는 몰라도 사실이 그런 것만은 거짓말이 아니다.

희준이는 올봄에 뒷산에 올라서 떡갈나무잎을 보고 느끼던 것이 생각난다. 지금 이들은 마치 떡갈나무의 묵은 잎새와 같이 낡은 생각(구시대의 봉건적 가치관. 가난한 농민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일을 하다 가난하게 죽는다고 생각함)이 붙어 있지 않은가. 햇잎새가 길게 싹(근대적 가치관)터 나오는데도 묵은 잎새는 그대로 그 밑에 붙어 있다. 그들은 새 시대를 맞으면서도 오히려 묵은 사상에 사로잡혀 있지 않으나? 봄이 – 인간의 봄이 무르녹아야만 그들의 묵은 잎새도 떨어지려는가?

▶ 농민들의 묵은 생각이 바뀌기를 기대하며 농사일에 직접 참여하고 두레를 이끌어나가는 희준
– 이기영, 「고향」

▣ 핵심 정리

- 갈래 : 장편소설, 농민소설
- 배경 : 시간 - 1920년대 말, 공간 - 농촌(원터 마을)
- 시점 : 3인칭 전지적 작가 시점
- 경향 : 카프 계열, 사회주의 리얼리즘
- 갈등구조 : 계급 간의 갈등
- 제재 : 식민 통치로 점점 피폐해지는 농촌 생활
- 주제 : 난관을 극복해 나가는 농민들의 의식의 성장.
- 의의 : 농민 중심의 대표적 농민소설.
- 인물

- 김희준 : 주인공. 동경 유학생 출신. 농민 공동체 형성을 위해 노력하는 농촌 운동가. 농민을 결속시켜 안승학과 대결한다.
- 안승학 : 서울 민 판서 집의 마름. 새롭게 부상(浮上)한 신흥 세력가. 농민 착취의 전형적 인물.
- 권상철 : 상인. 고리 대금업자
- 안갑숙 : 마름 안승학의 딸. 아버지와는 달리 제사 공장에 가명(라옥희)으로 위장 취업하여 농민을 돕는 농촌 운동가. 김희준에 대한 사랑을 동지애로 승화시킨다.
- 권경호 : 비정상적으로 출생하여 부잣집의 아들로 성장하던 인물이다. 이 작품에서 그의 역할은 안갑숙과의 연애 문제에 한정되어 나타난다.
- 인순 : 농촌을 떠나 공장에 취직하여 생활하면서 현실의 모순과 부조리를 인식하나 파업과 소작쟁의에는 참여하지 않는다

■ 구성

- 발단 : 농민과 마름의 대립. 여러 인물 소개.
- 전개 : 청년회의 충돌, 갑숙의 가출, 두레 조직, 갑숙과 경호의 공장 취직
- 위기 : 수재를 당함. 경호·갑숙의 갈등
- 절정 : 소작료 삭감 투쟁
- 결말 : 동트는 새벽, 장래의 희망과 동지애

▣ 이해와 감상

<고향>은 철저한 사실주의를 표방한 농민소설의 대표작으로, 농민의 문제와 노동자의 문제 그리고 가진자의 횡포가 삼각연애라는 재미와 더불어 이 소설의 기본 골격을 이루고 있다. 특히 동경 유학생 출신 농민인 김희준과 마름 안승학의 딸인 안갑숙(공장 노동자)의 연대는, 당대의 노동자와 농민의 연대를 통한 농업문제의 해결이라는 노농동맹사상의 표출로 볼 수 있다.

◆ 인물(주인공) 형상화에 성공한 작품 → 김희준은 '지식인 계급 전형의 창조'라고 높이 평가되어 온 인물이다. 일본 유학을 한 지식인이지만, '원터' 소작농의 아들이며, 고향에 돌아와 농민운동을 조직해 간다. 즉 김희준은 갑자기 외부에서 찾아든 사람도 아니고 다른 계급의 사람도 아닌 '자기 계급의 지식인'인 것이다. 지식인이 지닐 수 있는 관념성을 벗어던지고 있는 것이다. 농민소설에서 단골로 등장하는 영웅적이고 이상적인 '지식인 유학생'의 모습에서 탈피하고 있는 것이다.

◆ 이 작품은 사회주의적 리얼리즘으로 쓰여진 일제시대 프로문학 내지는 농민소설로서 최고의 소설로 평가되고 있다. 이 작품은 브나로드 운동이 한창이던 시기에 나왔지만, 브나로드 주창자들과는 달리 문화 운동으로서의 농민 계몽이 아니라 경제 투쟁으로서의 농민 운동을 강조하고 있다. 이른바 혁명적 프롤레타리아의 이데올로기를 바탕으로 깔고 노동쟁의 양상, 소작쟁의 양상, 그리고 양자의 결합 양상, 프롤레타리아 계급의 지도자상을 보여주는 데 역점을 두고 있다. 더구나 이런 투쟁의 모습을 생경하게 노출하지 않고 농민들의 생동감 넘친 생활 묘사 속에 유기적으로 스며들게 한 데 이 작품의 미덕이 있다.

◆ 이 작품은 카프에서 요구하는 도식에 맞추기 위해 많은 작위성이 드러난다는 것, 갑숙의 성격이 지나치게 이상화되어 있다는 점, 희준과 갑숙의 만남에서 개인적 애정보다 다른 사람들을 위한 희생적 동지애가 중요하다는 관념적 원칙을 내세운 점 등에서 다소의 한계를 지적해 볼 수도 있겠다.

■ 전체 줄거리

1920년대 말 원터 마을, 동경 유학생이던 김희준이 학자금 난으로 학업을 포기하고 고향으로 돌아온다. 그는 소작인으로 농사를 짓는 한편으로 농민 봉사, 계몽 활동을 통하여 농민 지도자로서 위치를 굳힌다. 그를 중심으로 한 소작인들은 동네 마름인 안승학과 대결해 나간다.

마름 안승학은 그의 본부인을 서울로 보내 자식들을 교육시키도록 하고 자신은 첩 '숙자'와 함께 산다. 안승학과 '숙자'는 땅 '갑숙'이를 이 씨 문중으로 시집보내려 하다가 '갑숙'과 '경호'와의 관계를 알고 알아 늙는다. 왜냐 하면, '경호'는 읍내의 상인인 권상필의 아들로 알려졌으나 사실은 구장집 머슴 곽 첨지의 아들이었던 것이다. '갑숙'이는 가출하여 공장의 직공으로 취직한다. 그녀는 '옥희'라는 가명을 쓴다. 풍년이 들었으나 소작료와 빚진 것을 제하면 농민에게 돌아오는 것은 거의 없다. '갑숙'이와 친했던 '경호'는 집을 나와 생부를 찾고 역시 공장에 취직한다.

수재(水災)가 나서 집이 무너지고 농사를 망친다. 김희준을 중심으로 소작인들은 마름 안승학에게 소작료를 감면해 줄 것을 요구하나, 안승학은 이를 거절한다. 이때 공장에서도 '갑숙'(옥희)을 지도자로 한 노동쟁의가 벌어지며, 김희준은 이를 돕는다. '갑숙'이는 소작인을 괴롭히는 아버지에 반대하여 김희준과 힘을 합친다. 김희준을 비롯한 농민들은 끝내 안승학의 양보를 얻어낸다. 그리고 김희준과 갑숙이는 이성간의 애정을 초월하여 동지로서의 사랑을 확인한다.

2021
수특

2021 EBS 수능특강 문학 2. 적용학습 현대소설 03 김 강사와 T 교수 유진오 분석

이 콘텐츠는 「콘텐츠산업 진흥법」,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됩니다.
본 콘텐츠의 무단 배포 시, 콘텐츠산업 진흥법과 저작권법에 의거하여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 지문 분석

“문화 비판회라니?”(동경 제국 대학 시절에 김만필이 활동한 사회·문화 비판 모임)

김만필은 시치미를 떼고 되물었다. 스즈끼는 싱글싱글 웃으면서

“선생님이 그 회원으로 굉장하게 활동하신 것은 학생들이 모두들 압니다.”

“아뇨, 그런 일은 없소. 그건 무슨 잘못이겠죠.”(문화 비판회 활동이 자신의 앞날을 가로막는다 생각하여 활동했던 사실을 부인함)

김만필은 당장에 고개를 좌우로 흔들며 그 말을 부정했다. 가슴속에서는 그의 조그만 지위와 양심이 저울에 걸려 있는 것을 느끼면서.(현실VS양심 사이의 갈등)

“그러세요.”

스즈끼는 의아해하는 표정을 하면서

“그 회가 해산될 때 선생님이 굉장한 열변을 토하셨다는 말까지 있는데요?”

“아니 그런 일은 없소.”

▶ 문화 비판회 활동 전력(前歷)을 극구 부인하는 김만필

김만필은 그래도 부정했다. 그러나 그의 기억에는 그날의 감격에 찬 광경이 역력하게 나타났다(문화 비판회 활동을 자랑스럽게 여기고 있음). 문화 비판회가 드디어 해산되기로 정해진 날 그는 분노에 불타서 말은 더듬거릴망정 그야말로 소리와 눈물을 한꺼번에 내쫓는 열변을 토한 것이었다. 그 고운 기억은 그가 아무리 비열한 인간이 되어 버리는 날이 있을지라도 결코 잊어버릴 수 없는 것인 것이다. 김만필은 그것까지도 터놓고 이야기할 수 없는 자기의 현재의 지위에 대해 잠깐 스스로 책망하는 생각에 잠겼었다. 그러나 곧 그는 공세로 옮겨 갔다. 이런 소리까지 냄새를 맡아 가지고 학생 새에 펼쳐 놓는 그 근원은 대체 어느 곳에 있는 것인가.

▶ 문화 비판회 활동 전력(前歷)을 자랑스럽게 기억하는 김만필

“그런 소문은 대체 어디서 들었소?”

스즈끼는 김 강사의 심상치 않은 태도에 당황해서 얼굴을 붉히며

“요전에 다카하시 군에게 들었습니다.”

“다카하시는?”

“T 선생이 그러시드래요.”

“T 선생?”

“네. 김 선생님은 굉장한 수재시고 동경 제대서도 문화 비판회의 중요한 회원이시었다구요.(T교수가 김 선생님을 칭찬하는 듯 하지만 사실은 곤경에 처하도록 의도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음)”

▶ 학생들에게 자신의 전력(前歷)을 알려준 사람이 T교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된 김만필

“흠 -.”

김만필은 말없이 생각하였다. 이것은 예사로 넘길 일이 아니다. 무슨 깊은 책략이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였다. 그러나 그렇기로 T 교수는 대체 어디서 또 그런 소리를 냄새 맡아 왔을까. 정말 셰퍼드 같은 작자다.(자신의 전력(前歷)을 의도적으로 발설한 T교수에 대한 적개심)

이놈 이번에는 제 본색을 나타냈구나 하고 분개했다. 그러고 보니 지금 그의 앞에 앉았는 스즈끼까지도 의심스러워졌다.(불안감으로 인해 학생까지도 의심하는 지경에 이름) 스즈끼는 오늘 처음으로 찾아왔으면서 다른 선생한테 가서 철없이 떠들면 단번에 학교를 쫓겨날 만한 소리를 지지하게 늘어놓았으니

그렇게까지 자기를 신용할 근거가 어디 있는가. 어쩌면 이 스즈끼 놈도 T 교수와 한통이어서 일부러 김만필의 본심을 떠보러 온 것이나 아닐까. 이렇게 의심하기를 시작하니 다음다음 모든 것이 의심덩어리였다. 대체 취임식 다음 날 T 교수가 난데없이 스즈끼 욱을 자기에겐 들려주던 것부터 이상스러웠다. 그것은 일부러 자기를 속일 전제가 아니었던가…… 스즈끼는 김 강사의 눈치가 험해 가는 것을 보고 어쩔지를 몰라 멈칫거렸으나 스즈끼가 그러면 그럴수록 김 강사는 이놈 시치미를 떼는구나 하고 점점 더 스즈끼가 밍게 생각되는 것이었다.

▶ T교수는 물론 스즈끼까지도 의심하게 됨

(중략)

“긴상, 그날 밤 일(자신의 강사 자리를 소개해 준 H과장에게 인사차 찾아갔다가 T교수를 우연히 만난 일) 아주 기억하고 계시죠. H 과장 댁 앞에서 우리가 맞닥뜨리던 날 밤-.”

김 강사가 의미 없는 웃음을 지었더니

“기억하고 계시죠. 내가 과자 상자(H과장에게 T교수가 사 간 선물)를 들고 갔던 것 보셨죠.”

김 강사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세상이란 다 그런 겁니다(윗사람의 환심을 살기 위해 선물 등의 뇌물을 바쳐야 한다는 것). 난들 그런 짓(잘 보이기 위해 선물을 사간 일)을 하기가 좋아서 하겠소. 어쨌든 지금 연말도 되구 했으니 교한테 무어 과자라도 한 상자 사 가지구 찾어가 두시란 말이오.”

말해 던지고 T 교수는 그대로 가 버렸다.

▶ 교장에게 선물을 들고 찾아갈 것을 권하는 T교수

교실에 들어가 강의를 하면서도 김 강사는 T 교수의 말을 잊어버릴 수가 없었다. 씹어 생각해 보면 T 교수의 말은 그럴 듯도 싶었다. 그러나 다시 생각해 보면 지금 와서 과자 상자를 사 들고 주적주적 교장을 찾아가도 소용이 없을 뿐 아니라 도리어 업신여김을 받을 것 같았다. 뿐 아니라 T 교수의 성격이라든지 그의 모든 것을 생각해 보면 그가 진정으로 김 강사를 위해 무슨 말을 해 줄 이유는 하나도 없는 것이다.(T교수가 충고해 준 진심을 의심하고 있음) 만일 그렇다면 T 교수의 말은 실상은 책상물림 주제에다 어딘가 만만치 않은 교장이 있는 김 강사를 조롱한 것에 지나지 않는 것이다. 그러나 또다시 돌려 생각하면 T 교수의 말은 좀 더 의미가 깊은 것으로 ‘교장은 너를 미워하고 있다. 너도 미리 생각을 돌리지 않으면 목이 잘라진다.’라는 협박같기도 생각되었다.

▶ T교수의 말을 듣고 갈등하는 김만필

그러나 어쨌든 그날 밤 김 강사는 명치옥에 가서 서양과자를 한 상자 샀다. 위 뚜껑에 ‘조품 * ’이라 두 자를 쓰고 그 밑에 자기의 명함을 붙였다. 그러나 그러는 동안에도 그의 마음속에서는 종시 두 가지 의사가 싸우고 있었다. 암만 무얼 해도 이 짓만은 하기 싫다. 자기가 이것을 가지고 가면 교장은 이놈 인제두 하고 빙그레 웃고 T 교수는 등 뒤에서 그 능글능글한 웃음을 띠고 나의 어리석음을 조소할 것이다. 어차피 S 전문학교에 다니는 것도 길지는 않을 것이니 이런 짓(자신의 자리를 지키기 위해 교장에게 선물을 사 가는 일)까지 하면 그만큼 나는 밀질 뿐 아닌가.(교장에게 선물해야하는 지에 대해 머릿속으로 계산하는 모습) 그러나 바로 그다음에는 다른 생각이 드는 것이었다. 아니 T 교수의 말대로 세상이란 다 이런 것이다. 내가 지금 암만 뽐내 본댔자 배 속을 짜개면 S 전문학교를 나가고 싶지 않은 것이 본심이 아닌가.(S전문학교에 남아 사회,경제적 안정을 찾는 일 VS 지식인으로서 양심과 자존심을 지키는 일 사이의 내적갈등을 인물의 심리 묘사를 통해 드러내고 있음)물에 빠지는 자는 지푸라기라도 잡는다(아쉬우면 뭐든 한다) 한다. 이론이 다 무엇이냐. 내가 이런 짓을 하는 것이 더럽다 하면 나에게 이런 짓을 하게 하는 자들은 더 더러운 것이다. 이런 것으로 더럽히는 것은 내 양심이 아니라 놈들의 양심이다. 나는 요런 조그만 미끼를 물고 좋아하는 놈들의 그 천박한 꼴을 조소하면 그뿐인 것이다 -.

▶ 교장에게 과자를 들고 갈 것인지를 두고 갈등하는 모습

김 강사는 악마의 마음을 먹은 심 잡고 과자 상자를 들고 서대문행 전차를 탔다. 그러나 그의 결심은

오래 계속되지 못했다. 그는 광화문 정류장에서 전차를 내려 **효자동 가는 전차(교장의 집 쪽으로 가는 전차)**를 타지 않고 천천히 종로로 갔다. 본정통의 번잡한 데 비해 이곳은 몹시 잠잠했다. 일루미네이션(설비등)만 헛되게 빛나고 세모 대매출의 붉은 깃발이 쓸쓸한 선달 대목 거리의 먼지에 퍼덕이고 있었다. **한참이나 거리를 어슬렁거리다가(계속되는 김 강사의 내적 갈등)** 욕심쟁이로 일가 간에 돌림뱅이가 된 아주머니를 생각한 그는 걸음을 빨리해 파고다 공원 뒷골목으로 들어갔다.

- 유진오, 「김 강사와 T 교수」

▣ 핵심 정리

■ 갈래 : 단편소설, 지식인 소설, 사회소설

■ 배경 :

- ① 시간적 배경 - 일제 강점기
- ② 공간적 배경 - 일본 교사가 중심인 S전문학교

■ 시점 : 3인칭 전지적 작가 시점

■ 성격 : 사실주의

■ 갈등 : 위선과 진실 사이의 갈등

■ 주제 : 일제하 지식인의 현실 타협적 나약성과 정신적 갈등

■ 주제의식 : ①일제하 조선 지식인들의 현실 적응 실패, 일제 문화 정책의 허상, 이중적인 사회 구조의 개혁에 실패하는 비판 세력

■ 인물

① 김만필(김 강사) : 주인공. 나약한 지식인의 전형. S전문학교 시간 강사. 타락한 현실에 자신을 적응시키기 위해 타협하는 소시민적 지식인. 끝내 비극을 맞는다.

《주인공의 양면성 : T교수의 충고를 무시하는 김 강사는 양심에 따라 행동하는 인물이지만, 한편 한 학생이 찾아와 자신의 문학 비평회 활동을 입에 올렸을 때 모처럼 얻은 자신의 지위를 잃는 것이 두려워 양심을 속임》

② T교수 : 김만필의 선임자. 일본인 교수로 교무 일을 맡고 있다. 약삭빠르고 교활하고 비굴한 성격으로 반동적 인물.

③ H과장 : S전문학교 재단 사무과장 격으로 막후 실력자.

④ 교장 : 강자에게는 약하고 약자에게는 매우 거만한 인물. 일본인

⑤ 스즈끼 : 학생.

■ 구성

- 발단 : 인물 소개와 배경의 설정.

- 전개 : T교수와 김 강사의 대조적인 행동. T교수의 비열한 행동과 현실에 적응할 줄 모르는 김 강사.

- 위기 : 김 강사의 전력(前歷) 노출. 김 강사의 전력을 칭송하는 T교수. 김 강사의 과거를 거론하는 스즈끼.

- 절정 : 과거의 노출로 고뇌하는 김 강사.

- 결말 : 학교에서 쫓겨나게 되는 김 강사.

▣ 이해와 감상

당대 현실의 부조리, 속물적(俗物的)인 인간의 속성을 제시하면서 지식인의 내면적 취약성도 냉정하게 비판하고 있다. 이 소설은 일제 치하에서 일본 사람들이 중심을 이루고 있는 S전문학교를 배경으로 하고, 대학을 갓 졸업하여 세상 물정을 모르는 책상물림인 '김만필'이 시간 강사로 취직하면서 겪는 갈등

을 그린 것이다. 김 강사는 현실에 적응하려다 결국 실패하는 지식인의 참담한 모습을 보여 준다.

김 강사의 패배의 원인은 첫째로 현실의 구조적인 모순에 있다. 김 강사는 일제의 체제하에서는 용납 받을 수 없는 사회주의 운동에 가담한 일이 있다. 그래서 김 강사는 불안해한다. 그는 인생의 모순의 축도를 자신이 몸소 보이고 있는 것 같다고 생각한다.

“지식 계급이란 것은 이 사회에서는 이중 삼중 사중, 아니 칠중 팔중 구중의 중첩된 인격을 갖도록 강요되는 것이다. 어떤 자는 그 수많은 인격 중에서 자기의 정말 인격을 명확하게 쥐고 있다. 그러나 어떤 자는 그 수많은 인격에 현황(眩恍)해 끝끝내는 어떤 것이 정말 자기의 인격인지도 모르게 되는 것이다. 그러면 지금 자기는 이 두 가지 중의 어느 것인가?”

이것은 일제 치하 한국 지식인들의 고민을 솔직하게 표현해 준 말이다. 지식인 문제를 다룬 소설은 실직(失職) 문제가 주류를 이루고 있는데, 이 소설은 지식인이 어떻게 지식인답지 못한 모습으로 처세하는가를 보여줌과 동시에 얼마나 무력하게 사회 현실에 휘말리는가를 부각시켜 주고 있다. 주인공은 역사 의식이나 사회 의식이 부족하여 이에 대처할 줄을 모른다.

둘째로 김 강사가 패배한 원인은 인물의 성격에 있다. ‘김만필’은 사회의 구조적 모순을 개혁하려 하지 않고 여러 겹의 가면을 쓰고 살려고 한다. 그러나 일본인 교수이면서 약삭빠르고 비굴한 성격을 가진 T 교수에 의해 한때 사회주의 운동에 가담했던 김 강사의 정체가 드러나게 되어 결국 김 강사의 행동은 파국에 이른다.

따라서, 이 소설은 지식인들이 상황을 헤쳐 나가는 모습은 형상화하지 못하고 인물의 성격을 부각하는데 초점을 두 느낌이 강하다. 물론, 이것은 작품이 쓰인 시대적 제약에도 원인이 있을 것이다.

▣ 전체 줄거리

문학사(文學士)인 김만필은 동경 제국 대학 독문학과를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하고 H과장의 소개로 S전 문학교의 독일어 시간 강사로 취직한다.

취임한 다음날, 선임자인 T교수는 스즈끼라는 학생을 조심하라고 친절하게 조언(助言)을 해 준다. 김 강사는 내심 고맙게 여기면서 긴장된 상태에서 첫 시간의 강의를 별탈없이 마친다.

며칠 후에 김 강사는 H과장에게 고맙다는 인사를 하러 갔다가 그의 집 대문 앞에서 T교수와 마주친다. H과장 집을 나온 T교수는 김 강사를 데리고 찾집으로 가서, 자신이 김 강사를 교장에게 추천했다면서 작년에 김 강사가 쓴 ‘독일 신흥 작가 군상’이라는 글을 신문에서 읽었는데 좋은 글이라고 칭찬한다. 그러나 그 글은 좌익 작가들을 다룬 것으로 학교에서 알면 좋을 리가 없다. 이로 인하여 김 강사는 T교수에게 두려움과 추악함을 느낀다.

어느 날, 독일 문학에 아주 박식한 스즈끼라는 학생이 김 강사에게 찾아온다. 그 학생은 문학자 박해를 비난하고 파시즘을 공격하고 히틀러를 공격하다가, 김 강사의 숨겨진 과거도 너무나 잘 안다고 말한다. 김 강사가 어디서 들었느냐고 하니 학생은 T교수에게서 들었다고 한다. 김 강사는 혹시 이 학생이 T교수의 스파이는 아닐까 하고 생각해 본다. 스즈끼가 김 강사를 찾아온 목적은 독일 문학 연구 그룹을 지도해 달라는 것이었다. 김 강사는 단호하게 이를 거절한다.

T교수는 새해도 되었으니 H과장을 한 번 찾아가라고 한다. 김 강사는 H과장을 찾아갔지만 H과장은 김 강사의 과거를 들춰내며 남의 얼굴에 똥칠을 해도 되는 거냐고 욕을 한다. 김 강사는 자신은 결백하다고 항변한다. 이때 T교수가 뒷방에서 나오면서 김 강사를 보고 비열한 웃음을 짓는다.

2021
수특

2021 EBS 수능특강 문학 2. 적용학습 현대소설 04 미스터 방 채만식 분석

이 콘텐츠는 「콘텐츠산업 진흥법」,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됩니다.
본 콘텐츠의 무단 배포 시, 콘텐츠산업 진흥법과 저작권법에 의거하여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 지문 분석

[앞부분 줄거리] 짚신 장수 아들인 방삼복은 삼십이 다 되도록 머슴살이를 하고, 일본과 상해 등지를 떠돌아다니다 조선으로 돌아와 헌신을 고쳐 주는 신기료장수를 하며 입에 풀칠을 하고 사는 인물이다. 그러던 어느 날 그는 조국이 해방을 맞이했다는 소식을 듣게 된다.

“**우랄질! 독립이 배부른가?(방삼복에 대한 작가의 비판적 태도 간접적으로 보여 줌)**”

이렇게 그는 두런거리면서 반감이 솟았다.

이삼일 지나면서부터야 삼복에게도 **삼복에게다운 해방의 혜택(국가의 발전과는 무관하게, 방삼복 자신만의 개인적인 이익을 위한 혜택)**이 나누어졌다.

십 전이나 십오 전에 박아 주던 징을, 오십 전을 받아도 **눈을 부라리는 순사(일제 강점기 시기의 일본 순사)**를 볼 수가 없었다. 순사가 없어졌다면야 활개를 쳐 가면서 무슨 짓을 하여도 상관없이 없고 무서울 것이 없던 것이었다.

“**웁아, 그렇다면 독립도 할 만한 건가 보다.**”

삼복은 징 열 개를 박아 주고 오 원을 받아 넣으면서 이렇게 속으로 중얼거리기까지 하였다.

그러나 며칠이 못 가서 삼복은 다시금 해방을 저주하여야 하였다.(조국의 독립을 자신의 이해 손익으로만 따짐) 삼복이 저 혼자만 돈을 더 받으며, 더 받아 상관없이 없는 것이 아니라, 첫째 도가(都家)들이 제 맘대로 재룻값을 올리던 것이었었다. 징, 가죽, 고무, 실 모두가 오 곱 십 곱 비싸졌다. 그러니 신기료장수는 손님한테 아무리 비싸게 받는댔자 재료를 비싼 값으로 사야 하니, 결국 도가만 살찌울 뿐이지 소득은 전과 크게 다를 것이 없었다.

“**이런 엠병혈! 그놈에 경제겐 다 어디로 가 뒤했어. 독립은 우라진다구 독립을 헌담.**”

석양 때 신기료 께짝 어깨에 멘 채 찾김에 막걸리 청으로 들어가, 서너 사발 들이켜고는 그는 이렇게 게걸거렸다.

▶ **방삼복은 조선의 독립이 자신에게는 아무런 이득이 되지 않음을 한탄함**

그럭저럭 구월도 열흘이 되고, **서울 거리에는 미국 병정이 꼬마 차와 함께 그득히 퍼졌다.**

그 미국 병정들이, 거리를 구경하면서 혹은 물건을 사러면서 말이 서로 통하지를 못하여 답답해하는 양을 보고 삼복은 무릎을 탁 쳤다.(독립 직후 혼란기에 미군이 득세하자 새로운 기득권에게 기생하려는 방삼복의 모습)

그러나 슬플진저(서술자의 개입. 방삼복의 내면심리를 대신 서술), 땀과 땀에 찌든 이 누더기를 걸치고는 가망이 없을 말이었다.

‘무슨 도리가 없을까?’

반일을 궁리를 하다가 정오 때에야 한 줄기 서광을 얻었다.

총총히 집으로 돌아가, 마누라를 시켜 구두 고치는 연장 일습과 재료 남은 것에도 이불이며 헌 옷가지 해서 한 짐을 동네 아는 가게에다 맡기고는 한 달 기한으로 돈 백 원을 서푼 변으로 취해 오게 하였다.

그 돈 백 원을 가지고 삼복은 흔한 녀마전으로 가서, 백 원 돈이 꼭 차는 한도까지에 양복이란 명색 한 벌과 모자를 샀다. 신발은 부득이 안방 사람의 병정 구두 사 신은 것을 이다음 창갈이를 거저 해주겠다는 조건으로 닷새만 제 것과 바꾸어 신기로 하였다.(방삼복은 자신의 외양을 거짓으로 꾸며서라도 새로운 기득권 세력인 미군에게서 자신이 출세할 기회를 얻고자 함)

▶ **입성을 거짓으로 꾸며서 출세할 기회를 도모하려는 방삼복 (중략)**

노예도 노예 이전이면 상전을 선택할 자유를 가지는 수도 있다고.(‘노예’: 방삼복 / ‘상전’: 기생의 대상 (미군) → 노예가 상전을 선택하게 된 상황을 통해 당대 혼란기의 모습을 비유적으로 나타냄)

삼복은 종로서 전차를 내려 동쪽으로 천천히 걸으면서 물색을 하였다. 생김새가 맘씨 좋아 보이고, 여느 병정이 아니라 장교쯤 가는 이라야 할 것이었다.

청년 회관 앞에서 담뱃대를 사고 있는 하나가, 몸집이 부대하고 여느 병정은 아닌 듯하고, 얼굴이 자못 선량하여 보이는 게 선뜻 마음에 들었다. 구경하는 체하고 언저리 그 옆으로 가 섰다.

미국 장교는 담뱃대를 집어 들고 기물스러워하면서 연방 들여다보다가 값이 얼마냐고, “하우 머취? 하우 머취?” / 하고 묻는다.

담뱃대 장수 영감은, 삼십 원이라고 소래기만 지른다.

알아들을 턱이 없어 고개를 깨웃거리면서 다시금 하우 머취만 찾는 것을, 기회 좋을시고라고, 삼복이 가 나직이,

“더티 원.” / 하여 주었다.

핵 돌려다 보더니 / “오, 캔 유 스피크?”

하면서 사뭇 그러안을 듯이 반가워하는 양이라니.(미군에게 기생할 기회를 얻게 된 방삼복) 아스러지도 록 손을 잡고 흔드는 데는 질색할 뻔하였다.

직업이 있느냐고 물었다. 방금 실직하였노라고 대답하였다.

그럼, 내 통역이 되어 주겠느냐고 물었다. 그러겠노라고 대답하였다.

이 자리에서 신기료장수 코빼푼이 삼복이 미스터 방으로 승차를 하여, S라는 미국 주둔군 소위의 통역이 되었다. 주급 십오 불(이백사십 원)가량의. 거진 매일같이 미스터 방은 S 소위를, 낮에는 거리의 구경으로, 밤이면 계집 있는 술집으로 인도하였다.

▶ **조선의 해방 직후 혼란기에 미군 소위의 통역이 되는 기회를 얻게 됨.**

한번은 탑골 공원의 사리탑을 구경하면서, 얼마나 오랜 것이냐고 S 소위가 물었다. 미스터 방은 언젠가, 수천 년 된 것이란 말을 들었기 때문에, 투 따우샌드 이얼스라고 대답하였다.(방삼복은 엉터리 영어 + 미천한 지식으로 미군 소위에게 기생하고 있음.)(방삼복-미군의 에피소드①)

또 한번은, 경회루를 구경하면서 무엇 하던 건물이냐고 물었다. 미스터 방은 서슴지 않고,

“킹 듀링크 와인 앤드 땀스 앤드 썩, 워드 땀서(방삼복-미군의 에피소드②).”

라고 대답하였다. 임금이 기생 데리고 술 마시고, 춤추고 노래 부르고 하던 집이란 뜻이었다.

내가 보기엔, 조선 여자의 옷이 퍽 아름답고 점잖스럽던데, 어째서 양장들을 하는지 모르겠다고 S 소위가 물었다. 미스터 방은 여자들이 서양 사람한테로 시집을 가고파서 그런다고 대답하였다.(방삼복-미군의 에피소드③)

서울역을 비롯하여 거리에 분노가 범람한 것을 보고, 혹시 조선 가옥에는 번소가 없느냐고 S 소위가 물었다. 미스터 방은, 있기가 집집마다 다 있느니라라고 대답하였다.

썩 좋은 조선 그림을 한 장 사고 싶다고 하여서, 문지방 위에도 흔히들 붙이는 사슴이 불로초를 물고, 신선이 앉았고 한 것을 오 원에 한 장 사 주었다.(방삼복-미군의 에피소드④)

제일 재미있고 유명한 소설이 무엇이냐고 물어서, 『추월색』이라고 대답하였고, 그럼 그것을 한 권 사고 싶다고 하여서, 여러 날 사러 다니다 못해 동네 노마네 집에 치를 이 원에 사 주었다.(방삼복-미군의 에피소드⑤) 이 밖에도 미스터 방은 S소위에게 조선을 소개한 공로가 여러 가지로 많으나 대강은 그러하였다.

▶ **에피소드식의 나열을 통해 방삼복의 무능함을 희화화하고 부조리한 현실을 풍자함**
그 공로에 정비례해서, 미스터 방은 나날이 훌륭하여져 갔다.(무능하고 교활한 사람이 득세하게 되는

현실에 대한 반어적 표현. 서술자의 개입 및 작가의 풍자) 팔일오 이전에 어떤 은행의 중역의 사택이었던 지금의 이 집으로, 현저동 그 집에서 옳아오기는 S 소위의 통역이 되는 사흘 후였다. 위아래층을 다양식 절반 일본식 절반으로 꾸민 호화스러운 저택이었다. 정원엔 때마침 단풍과 가을 화초가 아름다웠고, 연못에선 잉어가 뛰놀고 하였다.

▶ 무능한 방삼복이 S소위의 통역을 한 후, 단시간에 호의호식하게 되는 부조리한 현실
- 채만식, 「미스터 방」

▣ 핵심 정리

■ 성격 : 풍자적, 현실 비판적, 해학적

■ 특징 : 판소리 사설의 문체를 사용하여 인물을 바라보는 작가의 풍자적 태도가 극대화 됨(감칠맛 나는 사설로 상황을 요약적으로 제시, 발음이 비슷한 점을 이용한 언어유희-미스터 방인지 구리다 방인지, 구어체적 표현)

■ 주제

- 권력을 좇아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는 당시의 세태와 인간상 비판
- 광복 직후 새롭게 진주한 외세에 기대어 출세를 지향하는 세태에 대한 비판

▣ 전체 구성

■ 발단 : 방삼복은 십여년을 외국에서 떠돌다가 집에 돌아와 서울로 가서 신기로 장수를 하면서 겨우 연명한다.

■ 전개 : 방삼복은 미국 장교에게 전금하여 통역을 해 주고 그의 통역이 된다. 그 후 삼복은 큰 집으로 이사를 가고 부자가 되어 권세를 누리게 된다.

■ 위기 : 어느 날 백주사가 찾아와 수사로 있던 자기 아들과 함께, 재산을 빼앗기게 된 사정을 이야기 하면서 보복을 부탁하게 된다.

■ 절정, 결말 : 방삼복이 뺏은 양치물이 공교롭게도 그를 찾아온 S소위의 얼굴에 떨어지게 되고, 허둥지둥 뛰어온 삼복은 S소위에게 어퍼컷을 한 방 맞는다.

▣ 인물 소개

■ S소위 => 미군 소위. 한 사회의 변화를 일으킨 역할을 담당한 제3의 인물, 즉 사회의 실제적인 권력을 행사하는 S소위를 등장시켜 권력에 아부하는 인간형

■ 미스터 방(방삼복) => 미군 소위에 빌붙어(S소위의 통역)권세를 누리는 기회주의자. 능력보다는 행운이나 요행을 좇아 권력에 기생하는, 도덕적으로나 인간적으로 성숙하지 못하는 인물

■ 백주사(친일파) => 일제 강점기에 권력을 누리다가 해방후 재산을 찾기 위해 미스터 방에게 청탁을 함. 사회의 어떤 변화에도 자유자재로 변신하면서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는, 어떠한 비굴한 처신도 개의치 않은 인물

▣ 전체 줄거리

서울에서 신기로장수를 하던 짚신 장수의 아들 방삼복은 광복 직후 혼란기를 틈타 미군정 아래에서 큰 영향력을 행사하는 미군 장교 S 소위의 통역이 된다. 그는 '미스터 방'으로 불리며 미군의 위세를 등에 업고 상류층의 청탁으로 치부하며 권력을 누리게 된다. 어느 날 고리대금으로 많은 돈을 번 친일파 백주사가 같은 고향 사람이라며 찾아와, 광복 후 군중의 습격을 받아 도망친 사정을 토로하며 방삼복에게 복수를 부탁한다. 거들먹거리며 청탁을 들어주겠다고 장담하던 방삼복은 양치질을 한 뒤 물을 바깥으로 뺏는데 그때 마침 방삼복을 찾아온 S 소위가 이를 뒤집어쓰게 되고 방삼복은 주먹질을 당한다.

▣ 이해와 감상

★ 제목 "미스터 방"의 명명에 나타난 의미

인물의 품격에 맞지 않은 命名으로, 반어를 통한 희화화로 판소리 문체와 어우러져 부정적 인물이 득세하는 당대 현실의 모순에 대한 고발과 풍자성을 극대화

★ 사회적 배경과 인물의 관계: 혼란한 시대의 기회주의적 인간형과 권력 피라미드

⇒ 기회주의자가 득세하는 세태와 인간상에 대한 풍자

2021
수특

2021 EBS 수능특강 문학 2. 적용학습 현대소설 05 임종 염상섭 분석

이 콘텐츠는 「콘텐츠산업 진흥법」,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됩니다.
본 콘텐츠의 무단 배포 시, 콘텐츠산업 진흥법과 저작권법에 의거하여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 지문 분석

“의사가 없으면 약이라두 지어 올 일이지, 사람이 성의가 없어.”

침대 위에 간신히 부축을 하여 일어나 앉은 병인은, 만경에 빠진 사람 같지도 않게 의식이 분명하고, 숨결은 차지마는 말소리도 또랑또랑하다. 병인은 어제부터 새판으로, **입원하기 전에 대었다가 맞지 않는다고 물린 한의를 병원 속으로 불러오라는 것이었다(입원하기 전에 한의사에게 치료를 받았지만 효과가 없어서 병원으로 왔다는 것을 알 수 있음)**. 그것도 다른 사람은 다 제쳐 놓고 자기의 병 증세를 잘 이해하고, 의사와 수작이라도 할 만한 아우 명호더러 꼭 가라는 것이었다. 그러나 **어제 오늘 두 번을 갔다 오면서 의사가 시골에 출장을 가서 못 만났다고 약도 못 지어 가지고 오는 것(이를 동안 명호가 한의사를 만나지도 못하고 약도 못 지어 왔음을 알 수 있음)**을 보니, 툭 건드리기만 하여도 끊어질 듯한 신경만 날카로운 병인은, **자기를 속이는 것만 같고 주위의 모든 사람이 의심스러운 판이라 화를 내는 것도 무리가 아니었다.(병인의 심리를 서술자가 직접 서술하여 독자에게 전달하고 있음- 전지적 작가 시점)**

“어서 퇴원부터 하시고 의사는 이따 저녁때 불러오기로 하죠.(병인을 퇴원시키려고 설득하는 명호)”

오늘도 부쩍 더워진 날씨에 전차를 타기도 어중된 거리라, 걸어서 왕복을 하느라고 땀을 뻘뻘 흘리며 병실에 들어선 명호는, 옷통을 벗어 놓고 땀을 들이며 찬찬히 병인을 달랬다. **오늘 해를 넘길지 모르는 병자(병인이 곧 죽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함을 알 수 있음)**에게, 성의가 없다는 말을 들으니 몹시 섭섭하고 미안한 생각도 들었으나, 어쨌든 한약 찜찜 급한 것이 아니라, **예정대로 퇴원을 어서 시켜야 하겠는데, 또 판소리가 나올까 보아 어린아이 달래듯 달래려는 것이었다.(병인의 의사와 관계 없이 퇴원을 시키려는 가족들의 심리)**

“퇴원은 무슨 퇴원, 약이라두 지어 가지구 나가야지 이대루 나갔다간 당장 숨이 맥혀 죽어!……”

남의 고통은 조금도 몰라주고, 성한 사람들이 저의 대중만 치고 저의 형편 좋을 대로만 하겠다는 것이 화가 나서 역정을 와락 내어 보았으나, 숨결이 또다시 되어지며 말은 입속에서 어둡어져 버렸다. 병자는 성한 사람들의 자기에게 대한 동정과 성의가 부족하다고 늘 불만으로 여기는 모양이었다. 그것은 동정이 한편에서는 아름다운 것이나, 한편에 있어서는 비굴한 것이라는 것을 생각할 여지도 없이, **육체의 고통이 극도에 오를수록 모든 사람이 부족하게 구는 것만 같고, 자기를 돌려내고 민주를 대는 * 뜻 싫어 고까운 생각이 늘 떠나지를 않는 것이었다.(병인의 심리를 독자에게 직접 서술하고 있음)**

퇴원 놀래 * 는, 급한 고비는 넘겼으나, **인제는 아마 길게 끌리라는 의사의 말(의사는 병인의 병이 완치되지 않을 것이라고 판단했음을 알 수 있음)**을 듣고 벌써부터 나온 문제인데 병자의 반대로 미루미루 하여 오던 것을, **어제 한약을 먹겠다는 말끝에 거기 따라 명호가 부쩍 우겨서, 당자도 찬성을 하게 된 것이었다.(병인은 퇴원하고 싶지 않았지만 가족들의 설득에 밀려 억지로 퇴원하는 결정을 내렸음을 알 수 있음)** 정신이 말짱할 때는 옆의 사람이 송구스러울 만치 입원료가 더껍더껍 많아지는 걱정도 하고 죽은 뒤의 장비 마련까지 하던 사람이, **병세가 차차 침중하여지고 육체적 고통이 시시각각으로 뵈우쳐 대니까 이런 생각 저런 생각 다 잊어버리고, 덮어놓고 병원에만 있겠다고 고집을 부리던 것이었다.(죽음을 앞둔 병인이 삶에 대한 집착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음)** 그것은 병원에 누웠댔자 별수가 없는 것은 자기도 모르는 것이 아니지마는, 다만 하나 **주사(병인의 생명을 간신히 연장시키는 수단. 병인의 삶을 연장시키기 위해 병원에서 처방해 준 것)**를 못 잊어서 그러는 것이었다. 하마터면 뇌일혈로 인사불성에 빠질 뻔한 것을 백지장 한 겹 기간에 요행히 붙들어서 한약으로 머리의 피를 내려앉게 하여는 놓았었지

마는, 한 달 전에 입원할 때 이백 얼마라는 혈압을 오륙십 그램씩 두 번이나 쥐어짜듯이 하여 피를 빼고, 무슨 주사인지 미국 치를 비밀 가격으로 사들여다가 연거푸 놓고 한 덕에 간신히 부지를 하여 온 머릿속이요 심장이다. 거기다가 신장염이 겹들어서 부증이 들쪽날쪽하다가, 어쩔동하여 부기가 내리고 구미가 붙기 시작을 하여 한동안 수미(愁眉)를 찢던 것이나, 지금와서는 완전히 마취제와 강심제의 능력으로 꺼져 가는 등잔의 심을 돋우고 돋우고 하는 것밖에 아무것도 아닌 것뿐이었다.

▶ **병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가족들은 비용적인 측면 때문에 병인을 퇴원시키려 함.**
(중략)

신체를 모셔 들인 방에는 불은 때어 놓았으나, 미리 세간을 말끔히 치우고 병풍만 한 채 남겨 있었다.
(병인의 죽음을 예상하고 이미 장례식을 치를 준비를 하고 있었음)

병원에서 떠나기 전에 벌써 빈소 방이 준비되었던 것이다. 발상 전의 과수댁은 옆방에서 부리나케 보따리를 풀고 무엇을 찾았다. 명호가 오늘 반나절을 걸려서 땀을 뻘뻘 흘리며 지어 온 **약봉지가 먼저 방 바닥에 떨어졌다.**(병인의 죽음으로 더 이상 필요가 없어짐을 느끼게 함) 병자가 이틀을 두고 성화를 대며 졸라서 먹으려던 것이다. **과수댁은 컵 속에 넣은 물 종지를 찾아내서 빈소로 가지고 가더니 신체의 주위에 말끔히 뿌렸다. 세를 붙이고 받아 둔 성수였다.**(과수댁이 교회에서 시키는 대로 죽은 사람에 대한 예를 표하고 있음) 발치께 서서 가만히 바라보던 명호가

“그럼, 장례를 어떻게 지내시렵니까? **제사는 일체 폐하시나요?**(교회의 방식으로 예를 표하는 것을 보고 하는 명호의 질문)”

하고 물으니까 과수댁은

“그렇게까지야 하겠습니까.”

하고 다만 좋은 일이니, 교회 사람이 하라는 대로 한다는 것이었다. 초상집에서는 우선 삼일장이나 오일장이나 하는 의논이 벌어졌다.

“화장을 하라신 유언도 계셨으니 화장으로 모시면야 삼일장도 넉넉할 겁니다.”

명호는 첫째 장비(葬費) 걱정으로 화장을 앞세웠다.(경제적 사정을 내세워 장례식을 최대한 빨리 치르려고 함)

“그야 우리 형세에 삼일장이죠마는 화장은 아닙니다. 처음에는 그런 말씀이 계셨지만 나중에 다시 아무래도 아버지 곁으루 들어가시겠됐는데요.”

여기에 가서는 아무도 이렇다 저러하다 말할 나위가 없었다. 혹은 이 과수댁도 뒤미처 들어갈 테고 보니 자기부터 화장이 싫어서 그럴지도 모르나, 돌아간 이도 아직 먼 앞일이거니 하고 가상적으로 여유를 두고 말할 때는 화장을 입 밖에 냈을는지 몰라도 당장 닥쳐온 실제 문제가 되고 보니, **역시 선산에 묻히고 싶어 하였을 것도 넉넉히 짐작할 일이었다.**(병인이 화장보다는 매장을 더 원했을 것이라는 가족들의 생각을 서술자가 직접 서술하고 있음) 나 죽은 뒤에는 수의를 무슨 감으로 하여 달라느니, 관 속에는 이것저것을 넣어 달라느니 하는 유언도 하거든, 자기 묻힐 자리를 초점까지 해 놓고서 거기에 못 묻힐까 보아 애를 쓰며 세상을 떠나는 것도 우리가 아닐지도 몰랐다.

“말이 삼 일이지, 오늘 해는 다 가구 내일 하루인데, 첫째 산역이 문제로군.”

호상차지 * 의 걱정이었다.

“영구차에 버스 한 대는 따라야 할 테니, 자동차 샀만 해두 두 대에 사만 원은 예산을 쳐야 할걸.”

홍제원 화장장이면 고작해야 오륙천 원에 너끈할 것인데, 없는 돈에 찾삿이 사만 원 예산이라니 엄청난 나다는 말은치였다.(경제적 사정을 내세워 매장을 부정적으로 여기는 심리를 알 수 있음)

“화장이나 매장이나 돌아간 뒤에야…….”

젊은 축들은 저희끼리 이런 소리를 수군거리는 것이었다. 그러나 **아무도 그 말이 옳다고 찬성하는 사람도 없고 그르다고 나무라는 사람도 없었다.**(사람들의 태도: 산 사람의 입장>죽은 사람의 입장) 하여간 하룻밤 하룻낮을 안팎에서 복작대고 들볶아쳐서 제시간에 성복제도 지냈다. 성복제를 지내고 나니까,

않아누웠던 명호의 재종형이 지팡이를 짚고 지척지척 조상을 왔다.

“허! 내가 먼저 갈 줄 알았더니 이게 웬일이란 말인가!”

하고 관을 붙들고 상제들보다도 더 쉽게 울고 나더니, 염주를 꺼내 들고 염불을 시작하였다.(명호의 재종형이 불교의 방식으로 죽은 사람에 대한 예의를 표하고 있음) 한 식경이나 옆 사람들이 지루하도록 염불을 끝나치고는, 이 늙은이는 품에서 훔쳐훔쳐하여 백지에 기름히 쓴 봉지를 꺼내서 관상명정을 쳐 들고 관 위에 끼워 놓은 것은 손수 베낀 경문인지 한 모양이었다. 장지에 나가서도 하관할 때 폐백과 함께 이 종이 봉지도 횡대 밑에 넣는 것을 잊지는 않았다. 성수에 말끔히 씻긴 혼백이, 또다시 불타의 대자대비한 공덕에 안겨 안온히 잠들지 모르나, 그보다도 먼저 산 사람이 제각기의 소임이나 향의를 기울인 데에 만족을 느낄 것이었다.(산 사람의 행동이 진심으로 죽은 사람을 애도하기보다는 죽은 사람을 위해 최선을 다했다는 자신들의 만족을 위해서일 것임을 짐작하게 함)

- ▶ 죽은 사람의 가족들이 경제적인 사정을 내세우며 장례식의 절차를 간소화하는 쪽으로 의논함
- 염상섭, 「임종」

▣ 핵심 정리

- 병인의 '임종'의 의미 : 죽음의 경건함이 아니라, 인간의 이기성을 부각하는 계기가 된다.
- 갈래 : 단편 소설
- 배경 : 시간(1950년대). 공간(서울)
- 성격 : 사실주의적
- 시점 : 전지적 작가 시점
- 표현 : 인물들의 심리를 치밀하게 묘사하여 보여 줌
- 갈등 : 병인(죽음을 거부하는 태도) ↔ 집안 식구들(편리함을 생각하는 이기적 태도)
- 제재 : 임종 직전의 심리와 장례 절차
- 주제
 - 인간의 살고 싶어하는 욕망과 이기적인 마음
 - 삶에 집착하는 인간의 본능과 주변 사람들의 이기적 태도(병인의 죽음을 대하는 인물들의 이기적인 태도 비판)

▣ 주요 등장 인물

- 집안 식구들 : 노인의 생사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고 자신들의 편리함만 생각하는 이기적인 인간들, 집안 식구들은 노인이 살만큼 살았다는 생각을 한다.
- 병인 : 이 글의 주인공. 환자. 죽음을 초연하게 받아들이지 못하고 삶에 대한 집착을 보이다가 임종을 맞이한다.

▣ 서술상의 특징

- 전지적 작가 시점 : 서술자가 인물의 심리를 분석 제시한다.
- 사실적 심리 묘사 : 임종을 앞둔 인물의 삶에 대한 집착과 주변 인물들의 이기적인 심리를 사실적으로 그리고 있다.
- 다양한 인물들의 심리 제시 : 특정 인물의 시각에서 사건을 전개하기 보다는 각자의 상황에 따른 인물들의 심리와 행동을 묘사하고 있다.

▣ 이해와 감상

한 인간이 죽기 직전에 심리 변화와 병자를 둘러싼 가족들의 심리를 그린 작품이다. 인간은 죽음에 직면하면 삶에 대해 강한 애착을 보인다는 것과 비록 사랑하는 가족이라도 병들게 되면 사람들은 귀찮게 여길 수 있다는 것을 생생하게 포착하고 있다. 죽음이란 한 사람의 생애에 있어서 가장 극적인 전환의 순간이다. 존재의 상태에서 비존재의 상태로 넘어가는 경계의 지점에 죽음의 순간이 놓여 있기 때문이다.

생과 사의 갈림길에서 죽음을 받아들여야하는 당사자와 그 주변 사람들의 태도와 이익 관계 등을 적나라하게 묘사한 「임종」은 죽음을 다른 사람들과의 인간관계의 단절이라는 측면에서 형상화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인간이 죽음을 통해 어떻게 자기완성에 도달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도 생각하게 하는 작품이다

▣ 전체 줄거리

병인은 전과 같지 않게 생존의지가 강렬해졌는가 싶었다. 병원에 입원한 지가 한 달이 지난 판에 새삼스럽게 한의사를 불러오라고 하거나, 그 아니라면 약이라도 지어오지 않는다고 화를 낸다. 병원에 있으면서 한의사를 데려오라는 건 여간 억지가 아니었다. 병인의 동생 명호는 그 심부름을 다녀와선 변명을 하느라 또 진땀 꺼나 흘린다.

처음엔 한의를 불렀었다. 그런데 이 병은 한의에는 맞지 않는다고 물러났었다. 그래도 뇌일혈로 인사 불성에 빠질 뻔한 것을 한약으로 머리의 피를 내려앉게 하여 위급함은 모면했더랬다. 그런 다음에 병원에 입원했을 때는 혈압이 2백 얼마였다. 그걸 두 번씩이나 피를 빼내고, 미국제 약을 비밀 가격으로 사들여 간신히 명을 부지해왔다.

병인은 강심제나 모르핀 진통제로 괴로움을 임시로 잊는 나날을 보내는 중이었다. 처음엔 네 시간만큼씩 주사하던 것이 세 시간, 두 시간으로 줄어들더니, 나중에는 가슴이 타고 뼈개질 듯이 아파 오니 오밤중이라도 의사를 불러 주사를 놓게 했다. 지금의 그 처지를 당사자도 잘 알고 있는 터여서 어쩔거나 퇴원을 해서 한약으로 병을 다스려보고 싶은 마음인가 보았다.

병인의 아내나 가솔들은 돈걱정이 여간 드는 게 아니다. '가장을 잃으면 어린것들과 노두를 방황하겠거니 해서 애를 부둥부둥 쓰고 지성껏 병구완을 하던 것도 아직 든든한 생활력이 남아 있을' 동안이었지, 이제는 어서 퇴원을 시켜 집에서 임종을 맞도록 하자는 데에 의견이 모아졌다. 그럼에도 병인은 성의를 닦하고 역정을 내는 것이다.

사실 어제 퇴원을 서두르려 했었다. 그런데 C라는 젊은 위문객이 나타나 영똥한 말을 해댔다. xx재단을 설립하려 하는데 선생(병인)을 주요 직책에 추대하려는 공론이 있다는 거였다. 병인은 그 말을 듣자 곧 쾌유나 할 듯이 밝은 낯을 지었더랬다.

청년이 차츰 병색을 눈치채고는 서둘러 꿈무늬를 뺀 뒤로도 병인은 아내에게 누구를 시켜서 전말을 자세히 알아오라고 분부를 내리기도 했다.

그날은 병인이 고통이 심한지, 저녁 무렵에 들른 K의사에게 얼른 주사를 놓아달라고 요청한다. 의사는 병인의 뜻대로 해준 뒤 병인의 동생을 불러내 빨리 퇴원시키는 게 좋겠다고 권유한다. 병인이 약을 빨아들일 힘조차 없으니 생명이 오늘내일이라는 뜻이다.

병인은 동생이 불러나가는 걸 눈여겨보고는 의심을 한다. 우선은 듣기 좋은 대답을 해주었더니 부쩍 희망을 품는 내색이지만...

그러나 또 그쯤이라면 의사가 왜 직접 말하지 못할까 싶어 절망의 빛을 띤다. 갈팡질팡하는 사이에 눈

꺼풀이 스르르 잠기며 잠에 빠져들었다. 명호는 퇴원 전에 환자를 안심시키려 한약을 지으러 뛰쳐나갔다. 형수 쪽으로 보면 퇴원 길의 자동차 샅이 걱정스런 판에 약값으로 돈이 드는 게 여간 안타까운 게 아니다.

병인의 아내 친구들이 병문안을 왔다가 위독한 것을 알고는 둘러서서 기도를 바친다. 병인은 원래 불교를 좋아했으나 천주교를 믿는 간호사의 권고로 어느새 종부성사를 받았던가 보았다. 탁자 위에는 성수병까지 받아놓고 있었다. 명호의 눈에는 병인이 승낙한 일이니 이의가 있을 리 없지만, 안손님들의 기도를 보고는 우습다는 생각이 든다.

자동차를 불러 병인을 태울 때, 간호사에게 부탁하여 주사 한 대를 놓게 했다. 죽은 송장을 집에 끌어 들였다는 말을 듣지 않으려는 배려에서였지만 병인은 곧 운명을 맞았다. 그는 한때는 자기를 화장해도 좋다고 말했으나 나중에는 선산에 묻어줄 것을 고집했었다. 돈으로 치자면 화장하는 게 훨씬 절약될 일이었다.

말이 3일장이지 하루해는 다 가버린 참이다. '영구차에 버스 한 대는 따라야 할 테니 자동차샅만 해두 두 대에 사만 환은 예산을 잡아야 할' 게 걱정이다.

어떻든 들볶아 쳐서 제시간에 성복제를 지냈을 때, 알아 누웠다면 재종형이 관에 덮을 명정까지 준비해 가지고 나타나 상주들보다 더 쉼게 운다.

망자는 성수에 말끔히 씻겼다. 어쩌면 불타의 대자 대비한 공덕에 안겨 잠들지도 모른다. 그리고 산 사람들은 제 각각의 소임이나 향의를 다 기울인 데에 만족을 느낄 터였다.